

# 북스

## Books

# 누가 꺾으랴! 이들의 삶의 의지를

## 내 심장을 찌라

정유정 지음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로 청소년문학에 두각을 나타냈던 간혹사 출신 소설가 정유정(43·사진)씨가 다섯 번째 소설 '내 심장을 찌라'를 냈다. 1억 원 고료 2009년 제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부터 "뜨거운 감동과 생애에 대한 각성이 꿈틀대며, 희망에 대한 끈을 다시 움켜잡게 하는 마력이 깃든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소설의 주무대는 정신병원이다. 정신분열 증세로 열아홉 때부터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던 스톨다트의 이수명은 완치진단을 받고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성폭행 미수범으로 불리는 바람에 다시 강연도에 있는 외딴 정신병원 수리희망병원에 보내진다.

같은 날 동갑내기 류승민도 병원으로 들어와 수명과 함께 같은 병실 501호에서 나란히 병원생활을 시작한다.

야맹증이 심해 움직일 때마다 주변 기물들을 온통 망가뜨리기 일췌인 승민에게는 미스터리한 구석이 많다.

끊임없이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승민은 알고 보니 정신병원에서 '미처서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갇혀서 미친 사람'이었다. 재벌가의 재산 다툼 속

에 의붓형제들에 의해 억지로 수용된 것.

스톨다트 동갑내기인 수명과 승민. 하지만 그들은 극과 극이었다. 안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수명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승민과 엄하면서 수명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된다.

소설은 이 둘의 아슬아슬한 탈출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현장의 리얼리티가 생생하게 살아 있고, 한 번 빠져들면 끝까지 읽지 않고서는 책을 놓을 수 없는 흡인력을 자랑하는 것도 이 소설의 또 하나의 미덕이다. 간혹사 경험을 살린 작가의 넓고 치밀한 취재 덕분이다.

정씨는 이 작품을 위해 여러 차례의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했고 광주 인근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병동 사람들과 일주일 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슴 공극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숨는 놈 말고, 견디는 놈 말고, 네 인생을 상대하는 놈, 있기는 하나?"라는 승민의 말처럼 낯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 이 작품은 '주저앉은 청춘들'을 끊임없이 독려한다.

"남자라면 이 비열한 거리를 통과하여 걸어가야 한다. 그 자신은 비열하지도 않고, 몰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104쪽)

이 소설에서 작가는 '정신병원'을 단순한 의미의 병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운명의 족쇄를 빚낸 상징적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씨는 "작품을 통해 우리를 옥



죄는 이 운명과 어떻게 정면으로 대면하여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인지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상인 문단'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한 정씨는 차기작으로 가족이야기를 담은 코믹 스릴러물을 구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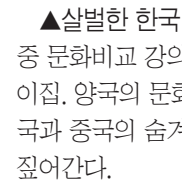
(**이행나우·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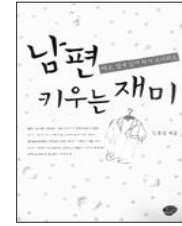
##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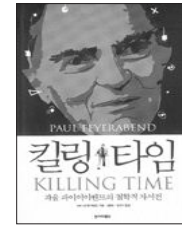
▲하이힐 신고 독서하기=여성의 사회적 성공과 원활한 조직생활, 유연한 인간관계 모두가 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윤정희가 성공을 위한 지적 자기계발 독서법을 제안한다. 더블 유인사이즈 김미경 대표, 스위스 벨풍타인 코리아 김민정 본부장 등 각 분야에서 책을 통해 성공한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예맥북스·1만1천원>



▲재능있는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허버드 의대 출신의 저명한 아동 발달 전문가 이인 토플러와 교육학 석사 테레사 디제르니모가 자녀의 재능을 보호하고 키워 줄 7단계 양육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 능력의 평가 지침과 아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체크하는 법에서 재능 개발에 도움을 줄 재정적·정서적 지원 방법까지 알려 준다. <황금가지·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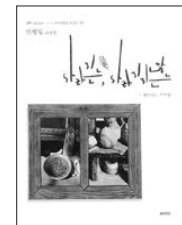
▲남편 키우는 재미-여보, 옆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조선족 작가 김춘실씨가 신문사 부사장이자 작가인 남편과 20년을 살며 티격태격 싸우며 일구어온 가족이야기를 묶은 수필집. 어린아이 같지만 남편을 길들이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친 '남편을 키우는 재미' 등 1, 2부로 나눠 40여 편의 글을 실었다. <타고·9천원>



▲킬링타임=오스트리아 태생의 과학철학자인 피아어벤트의 자서전. 조속했던 어린시절, 희곡과 철학에 탐닉했던 고교시절, 성악과 물리학을 전공한 대학시절, 나치시절의 군 생활, 육체적 장애와 성불구, 브레히트의 만남, 네 번의 결혼 등 굴곡 많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한겨레출판·1만5천원>



▲반만 버려도 행복하다-아름다운 노년,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하여=은퇴 후 실험묘양원과 요양시설에서 10년을 지낸 이경옥씨가 자신이 느낀 '노년'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자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노인의 죽음은 자연의 섭리'라는 전제 하에 존엄한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동일출판사·1만3천원>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1998년 경성남도 하동군 평사리를 기록한 민병익씨의 사진 작품집.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평사리에는 예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이기도 한 옛 평사리 모습을 담은 100여 점의 사진과 짧은 글들을 엮었다. <열린문·2만2천원>

## 경제지식 오해 풀기

### '경제학의 검은 베일'

경제와 관련된 일반인의 '오해'를 쉽고 생생하게 풀어쓴 '경제학의 검은 베일'이 번역돼 나왔다.

'테이크아웃 경제학'을 쓴 저자 토머스 소웰은 '교토 체증은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야기되는 필연적 결과'다 '집단지성은 정부 주도적으로 뛰어들어 잡아야 한다' 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들이 진짜 '상식'인지를 통계적 수치를 통해 검증한다.

저자는 '구성의 오류'와 '제로섬 오류' 등 상식이라고 믿는 네 가지 오류가 정확하고 올바른 경제학 해석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제는 'Economic Facts and Fallacies'.

<살림Biz·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www.kwangju.go.kr

## 뫼난 시들·산문집

김지하 지음

'생명사상'을 주창해온 김지하(88) 시인이 새 시집 '뫼난 시들'과 산문집 4권을 동시에 펴냈다.

3년 만에 내는 김지하의 '뫼난 시들'에는 말 그대로 '뫼난 시' 90여 편이 실려 있다. 뫼난 시1, 뫼난 시 0.008 등 시에는 막무가내 제목들이 달려있거나 별 의미 없는 숫자가 제목으로 달려

리지만 그 뜻은 공평을 던져쳐서 노 시인은 이제 사회와 삶을 관조하듯 노래한다. 예를 들면 자주 못 보는 아내, 유학한 아들, 고양이 똥이 등 가족 이야기와 촌통발에 대한 단상 등이다.

"촛불이 / 흑시는 / 후천개벽인지도 몰라// 촛불이

# 어려운 시를 읽기 쉽게 녹인 건 '촛불'

/ 흑시는 / 남북통일의 / 참 시작인지도 몰라// 촛불이 / 온 지구 생명의 구원인지도 몰라// (-/-) / 이 세상 맨 꼬래비 / 애경저들과 여편네들과 / 쓸쓸한 외톨이들이 어느날 / 문득 앞에 나서 직접 점지한다는 / 얼음썩 / 보름썩 / 아단법식 토론하는 / 옛, 옛, 옛 화백인지도 몰라"(46~50쪽 '뫼난 시 9' 중)

'뫼난 시집'의 탄생에 대해 시인은 "어렵지 않은, 좀 쉽게 시를 쓰라"는 아들의 충고와 지난해 촛불집회가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름·1만원>

시인은 또 '소곤소곤 김지하의 세상이야기 인생이야기'라는 공동본 부제에 단 에세이 형식의 사회 비평서 4권도 함께 내놓았다.

'방콕의 네트워크' '촛불, 햇불, 숯불' '새 시대의 울려, 품바품바 들어간다' '디지털 생태학' 전 4권으로 이루어진 산문집에서도 촛불은 핵심적인 주제를

이룬다. 김 시인은 "유사 이래 미성년자와 힘없는 부녀자들, 쓸쓸한 노인들이 생활 혁명, 정치 혁명의 가운데로 나선 건 지난해 촛불시위가 처음이었다"고 주장하고 "이 엄청난 사태앞으로 소외계층이 우주정치를 담당하는, 후천개벽으로 나아가는 '기원년정(己元親政)'의 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김 시인은 4권의 사회 비평서를 통해 '사이버 세대' '촛불세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사적 흐름과 우리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시대의 역할에 대해 다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 시인의 이번 글들은 이전 저작물에 비해 좀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이름·각권 1만3천7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OT (주)국민법률경제					서울·경기·광주·전남 경매					☎ 0621351-8240 H.P 010-7203-1100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지역	구	소매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구	소매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구	소매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주	신성동	해광삼거리	112	1억3천5백	9천4백	광주	오문동	813/338	8천9백	8천9백	광주	신성동	해광삼거리	112	1억3천5백	9천4백
	비야동	하남호반	79	6천8백	4천8백		비야동	843/241	2억3천2백	6억4백		비야동	하남호반	79	6천8백	4천8백

• 상기물건 외 다수확보! 물건 모두 친절하게 상담 하여 드립니다.